

정현

4.10~5.22 금호미술관

조은정 | 미술비평

정현은 오래된 물질을 작품의 주제로 가져오는 작가이다. 기차길을 이루던 침목, 공사장에서 나온 벽체에 박혀 있던 철근, 이제는 사라져가는 높디높은 나무 전봇대 그리고 도로에 깔려 달리는 차량의 속도와 무게를 이겨내던 아스팔트 등 그의 작품은 재료를 넘어 질료를 고찰하지 않고서는 감상에 이를 수 없다. 이번 전시에도 그는 새로운, 하지만 오래된 물질을 다루고 있는데 철거된 항교에서 나온 거대한 서까래와 도시개발로 사라진 이웃집의 잔해들이 그것이다.

전시장은 초기작부터 근작에 이르기까지 전시실마다 시기를 달리하여 한 작가의 여정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한다. 현대 중견작가의 작업 시간과 작품의 진수를 늘어놓은 전시장을 지나면서도 머릿속에 남는 인상은 흑과 백의 이미지이다.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만나는 희멀건 서까래의 강한 인상 때문일 수도 있고, 시꺼먼 나무토막들이 쌓아올려진 묵중한 더미가 전시실을 한가득 채우고 있어서일 수도 있다. 하얀 캔버스 바닥에 검정 나무토막을 흩어놓은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 광경은 볼륨감이나 시간성을 느끼게 하는 공간의 존재성이라기보다는 흩어지는 이미지, 색채로 인식된다.

힘과 에너지를 추구하는 작가의 작품에서 색채를 건져 올린 것은 전적으로 평자의 시각이다. 그것은 콜타르, 침목, 철근, 전봇대와 같은 것들의 어두운 색에서부터 완전히 검은 것으로 향하는 색을 보았다는

감각의 고백이다. 전시실을 가로지르는 하얀 바탕 위에 검정 나무토막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형태를 만들어낸다. 마치 흰 종이에 먹물을 듬뿍 묻힌 붓을 휘둘러 스미고, 튀고, 겹친 것처럼 그의 검정 나무토막들은 색으로, 먹의 짙은 농도로 바탕 위에 얹힌다. 조각의 특성인 공간에의 존재성은 흰색을 배경으로 해서 이전에는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공간을 창출한다. 그것은 상승하며 구축된 물질의 공간이 아니다. 먹이 종이 속으로 스며들어 표면의 파장을 만들어내듯 검정 파편들은 깊이 스며들어 공간에서부터 형태를 소거한다. 어떤 장면에서 오려낸 형태가 검은 부분으로 남듯, 그의 작품은 내부로 쌓아올려진 것으로 감지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 검은 나무토막의 실체와 깊은 연관이 있다.

본디 그 나무토막들은 숲에서와 인간이 거주하는 집, 수백 년은 아니지만 인간 삶을 놓고 보면 결코 짧다 할 수 없는 한 세대의 삶을 담은 공간의 한 부분이었다. 기둥이나 처마, 문짝을 구성하던 그 나무들은 마을이라는 공간의 변화를 온몸으로 맞았다. 가장 쉽고 빠른 철거 방식은 포클레인으로 모든 것을 한 움큼씩 쥐어 내는 것이다. 포클레인의 날에 맞은 물체들에는 아생의 발톱이 스친 것처럼 할퀴어진 자국이 남고, 본디의 결을 잊은 채 날카롭게 찢겨나간다. 작가에 의해 전시실 바닥으로 옮겨진 작은 나무토막들에는 찢길 때의 혈흔과 비명이 그대로 배어 있다. 조각을 통해 만들어낸 공간은 블랙홀처럼 무한히 시간의 저편으로,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삶의 공간을 투영한다.

이번 전시에서 인상적으로 등장한 굵고 긴 대들보는 원래의 모습 그대로 옮겨졌다. 지붕을 받치고 집의 중심부를 형성하던 용도가 폐기되어 그저 나무라는 이유로 목재소로 옮겨졌을 때의 모습 그대로라는 말이다. 개미가 먹어서 겉은 멀쩡하지만 어느 부분은 푸석푸석할 그 길고도 굵은 대들보는 어느 지방 항교에서 가지고 온 것이라고 한다. 족히 백 년은 넘었다는 의미인데 여전히 단청이 생생한 채로 바닥에 놓인 대들보는 수평재라는 의미에서는 지붕을 받치고 있을 때와 성격이 크게 변한 것은 아닌 성싶다. 작가는 하늘보다는 땅 가까이로 내려온 대들보의 빈 구멍을 검정색 나무토막으로 채웠다. 뜬금없이 상승하는 검정색 작은 기둥들이 대들보에서 사라진 기둥을 반추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다.

하늘과 땅, 위와 아래, 튀어나온 것과 들어간 것, 이 모든 조용하는 요소들이 어이없게도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를 되새기게 하는 단초이다. 나무가 기둥이 되고 기둥이 쪼가리가 되고 숲이 되고 사라져가는 과정에서 변화하지만 존재하는 것은 에너지 그 자체일 뿐이다. 눈앞에 있다고 해서 존재한다고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은 검은 숲처럼 자신을 소거시킨 것들에 의해 확인된다. 의연히 공간을 차지했던 그 존재들이 공간에 드러내는 방식은 스스로를 드러나지 않게 하는 소거의 방식이다. 스며들고 사라져가는 것들, 흔적이라고 지칭해야 할 작은 파편들이 쌓아올려진 무더기가 성황당을 연상시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시간 안에 붙잡는 기억의 매체가 조형성임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

위 정현 <무제> 나무에 먹물 착색 280×335×335cm 2018

아래 정현 <무제>(사진 왼쪽) 종이에 콜타르, 오일 바 650×150cm 2017

